

#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2026년 2차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6년03월12일	
이사정수	8	재 적	8
감사정수	2	이 사	

1. 일 시 : 2026. 03. 20(금) 11:00
2. 장 소 : 법인사무국 이사장실
3. 참석이사 : 차종선이사장, 송용운이사, 양승상이사, 김기완이사, 김성기이사, 국영희이사, 홍재진이사, 강상욱감사
4. 불참이사 : 김용규이사
5. 사 회 : 차종선이사장
6. 회의안건 : 1) 2026학년도 전반기(4월 1일자) 전임교원 승진임용 승인의 건  
2) 예원예술대학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임금 채권 해결 방안 심의의 건

## 7. 회의내용

이사장이 참석 여부를 확인하니 참석 7명, 불참 1명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법인국장에게 전 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 법인국장이 전 회의록을 낭독 보고하니 국영희이사의 동의와 김성기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이 찬성 “예” 하므로 전 회의록 보고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언하다.

이 사 장 : (회의 안건을 낭독하고 상정 여부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 “예” 하므로, 회의 안건을 채택하다.) 의안 1호 2026학년도 전반기(4월 1일자) 전임교원 승진임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교학지원처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학지원처장 : 2026학년도 전반기(4월 1일자) 전임교원 승진 대상자는 총 3명이

차종선	송용운	양승상	김성기	국영희
	김기완	홍재진	강상욱	

며, 만화게임영상전공 이동민 부교수, 융합조형디자인전공 송미령 부교수, 스포츠과학과 최희연 부교수입니다. 대상자 3명 모두 승진 점수는 충족되었습니다. 승진 임용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정년까지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교학지원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희이사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대상자 3명 모두 승진 충족점수는 충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대학인증평가 결과 미인증 대학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승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이동민, 송미령, 최희연 부교수의 정교수 승진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통상적인 업적평가 결과표와 본인의 자기진술서뿐입니다. 정교수 승진은 단순히 근속 연수를 채우거나 최소 논문 편수를 맞췄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기이사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정교수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완숙도를 의미하고 법인에게 '정년 보장'이라는 책임이 따르는 결정입니다. 현재 제출된 주관적인 자기진술서만으로는 향후 우리 대학의 비전을 함께 짚어질 리더십과 학문적 완숙도를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홍재진이사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등 위기 상황에서, 정교수는 학과 운영이나 학생 취업, 외부 연구비 수주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헌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교원업적평가 점수 몇 점'이라는 수치만으로 이사회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정교수 승진임용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심의를 보류하고 충분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기완이사 : 제청합니다.

사 승진	김성기	양승광	김성기	국영희
	김기완	홍재진	강대중	

이 사 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승인보다는 정교수로서의 적격성을 다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한 검토 후 재심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사 전원 동의함)

이 사 장 : 이동민, 송미령, 최희연 부교수의 정교수 승진 임용 건은 심사자료의 부족으로 심의를 보류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정교수 승진 심사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완숙도와 학내 리더십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므로, 법인에 소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자료를 학교로부터 제출받고 이에 근거하여 정량적·정성적 심사가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내에 '정교수 승진심사 소위원회' 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교수 승진심사 소위원회 운영규정」 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법인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승진 일자로부터 3개월 전까지 법인에 승진임용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촉박한 일정으로 승진임용제청을 하면 심의 없이 반려할 것입니다. 교원인사규정에 '3개월 전까지 제청' 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의안 2호 예원예술대학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임금 채권 해결 방안 심의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처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종삼 행정지원처장 : 예원예술대학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임금 채권 해결 방안 심의 건은 양주캠퍼스 일부이전, 국가정책에 따른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예원예술대학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급여가 미지급 되었고, 미지급 급여의 해결방안이 직원들과 합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방식은 총 미지급 급여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에 반영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 장 : 교원 미지급 연봉에 대해서는 2022년도 연봉에 반영한 사실이 있고, 2차로 직원들에 대해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이사님들의

차종삼	홍희원	양승광	김성기	주영희
	박기환	홍재진	김대영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운이사 : 학교의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합의해 주신 직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합의 내용이 적절하고 노무사의 자문까지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원예술대학교 경영 위기 극복 및 직원 임금 채권 해결 방안의 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양승상이사 : 제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 “예” 하므로), 의안 2호 예원 예술대학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임금 채권 해결 방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학교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신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본 이사회는 폐회(금일 12시 10분)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결의사항

1) 전 회의록 의결

2) 2026학년도 전반기(4월 1일) 승진 임용 :

- 의결 사항: 심의 보류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 보류 사유: 검증자료 부족
- 보완 요구 사항:
  1. 재심의를 필요한 추가 자료를 학교에 요청
  2. 정교수 승진심사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소위원회 구성
  3. 교원인사규정 개정 - 승진일자로부터 3개월 전까지 제청

3) 예원예술대학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임금 채권 해결 방안 심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차 증진	김영준	양 승상	김성영	주영희
	김이원	김재진	강대홍	

2026년 03월 20일

작성자 : 법인국장 차 종 삼

참석임원	이사장	차 종 삼	차 종 삼
	이 사	송 용 운	송 용 운
	이 사	양 승 상	양 승 상
	이 사	홍 재 진	홍 재 진
	이 사	김 기 완	김 기 완
	이 사	김 성 기	김 성 기
	이 사	국 영 희	국 영 희
	감 사	강 상 욱	강 상 욱

차 종 삼	양 승 상	양 승 상	김 성 기	국 영 희
	김 기 완	홍 재 진	강 상 욱	